

21세기 지식사회에서의 가치관의 재정립과 인생여명

Reestablishment of human sense of value & the reminder of my life
for the Knowledge Society in the 21th Century.



글 / 辛 容 伯

(Shin, Yong Back)

공장관리기술사, 공학박사,
한국기술사회 이사/홍보위원,
아주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교수.
E-mail: ybshin2645@hanmail.net

New human sense of value in Knowledge Society of 21th Century is reestablished by that it demanded new thinking for changed today's stage.

Reestablishment of new human sense of value is considered by tradition and custom, and now then today's social standard due to focus.

Productive human sense of value do to recreate for all round human relations and fertility human life demand it.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http://www.nso.go.kr> - Dec 20, 2005) was officially announced it, that Korean Life Table(2003) presented the reminder of human life and roughly equation model of "the reminder of human life" is "**Korean average longevity of human life - Present Korean age = About the reminder of human life**" on the basic 2003 year. And then we will live a life worth living for our remaining day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새로운 사고의 변혁

금세기는 지난 20세기와는 달리 생존환경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 때문에 물질(재화)만 풍부하면 만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었습니다만, 오늘의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첨단 기술과 정보화 사회로 발전되어 원근불문의 글로벌시대인 지식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생활의 합리화 개혁, 교육 문화의 개혁, 개인재산 못지않은 사회재산의 축적과 이의 유효한 활용, 연고 및 지역주의의 탈피, 선진화된 민주시민 의식의 고양, 후진적인 정치문화의 혁신, 봉건적인 관준민비 사상의 변혁, 올바른 지성의 참된 삶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혁신 등과 첨

단기술 정보화시대로 변천되어 가겠기에 새로운 사고의 변혁과 지식기반의 첨단기술 및 정보의 활용 등에 먼저 숙달되고 술선수범해야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 독자생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하(現下) 우리 국가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어떠한 국민이 훌륭한 국민이며, 또한 어떠한 집안이 훌륭한 명문가문이며,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그 표준적인 모범상을 시대발전과 변화에 따라 재설정하고 또한 제시해 줄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의 표준(기준) 없이 오늘의 기준이 아닌 과거처럼 단지 관직(官職)이 높았다거나, 재물이 많았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으로만 그 가문(家門)과 그 사람을 높이 우러러 보게 될 것인가?

지금은 정당하지 못하면 어떠한 고위직이거나 치부(致富)를 하였더라도 그는 분명히 나쁜 놈이고, 그 집안은 나쁜 놈의 집안일 것입니다.

또한 성실히 일만 열심히 하는 자가 훌륭한 직장인인지? 일의 결과치인 "새로운 가치창출과 생산성향상"을 배제한다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그 시대상황에 알맞은 올바른 가치관의 재확립으로 매사에 신중하고, 부모님 공경과 형제간에 우애를 다지며 남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성실한 언행일치의 생산적인 가치창출을 실행하는 인격자가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한 분들로 모여 사는 집안이 새로운 명문가(名門家)로서 훌륭한 집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 지식사회에서 인간관계의 행동요령과 새 가치관의 확립

지난 20세기는 과학기술개발 못지않게 중요시된 것이 바로 인간관계(human relations)로서, 1924~1932년에 걸쳐 연 4차의 실험을 통하여 얻은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메이요(E. Mayo) 및 리슬리스버그(F. J. Roethlisberger) 교수 연구팀의 WE社(웨스턴 일렉트릭회사) 호손공장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인간관계의 3가지 키·포인트”는 첫째, 일정한 조건하의 능률을 좌우하는 요소들의 비중은 상대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물질적 조건보다 인간적인 태도나 감정이 생산능률에 영향을 준다. 둘째, 조직구성원의 태도나 감정은 직장 분위기와 관리감독자(지도자)의 지도방침이나 행동에 따라 변한다. 셋째, 종래의 인식과 설명으로서 인간은 단순한 경제인(經濟人)이 아닌, 본 실험연구결과에서 사회적인 존재라는 새 인식과 가치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학문적 본질”은 인간 자체의

상호존중에 있는 것이기에 현재 우리들 주변에 변질된 “이기적 인간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울러 “지식사회의 인간관계 행동요령”으로서 현하 한국적 이해로서는 상대방 입장의 인격적 배려로 풀이할 수 있으며, 그 행동요령으로서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도덕성에 표준을 두고 인간자체의 상호존중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배려있는 행동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화 과정에서 짧은 역사적 시간 속에 농업국에서 공업국인 산업사회로 이행되어 오면서 정치적인 격변과 함께 우리의 가치관과 도덕성이 혼미하여졌고, 무분별한 서구문화가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안방 차지를 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보화의 지식사회로 접어들면서, 모르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첨단기술문화에 종속되어 가는 21세기 첨단과학기술에 신(新) 노예 같은 몰인격의 비인간관계의 또 다른 측면도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 도덕성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사고의 변혁을 수용하는 아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생산적 가치관 정립에 국가와 사회는 물론 국민들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산적 가치관의 재정립

현재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는 “정보의 활용과 경제적 부의 향유”에서 가장 큰 영

향을 받고 있으며, 옛날 우리 선조들은 자연을 벗하여 가난한 가운데 농사로 생업을 유지하던 옛적에는 지역차이 없이 문화적 혜택이나 주변 환경이 비슷하였기에 생각하는 가치관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도의 정보화 지식사회로 변모하고 있어서 경제적 부(富)와 다양한 정보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또한 개인적으로도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발생적으로나 산발적으로 얽히고설켜 그 시대의 동물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현재 선진공업국들이 잘 사는 이유를 묻는다면, 즉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이유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먼저 사회학적으로 “생산적 가치관과 유용한 정보의 가치 있는 활용”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선진국들은 일찍이 생산적 가치관을 확립하였기 때문에 각자의 직업에 투철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수준 높은 민도와 고도의 합리성에 목표를 둔 제도화로 국민적 단합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는 당리당략과 계파간의 이해와 갈등 등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고, 또 회사경영의 내적·외적요인의 악화평계로 소비대중은 왜 값 비싸고 상대적 기준으로 지불가격에 비하여 품질 나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지? 이는 극심한 이기심과 소비자를 「왕」이 아닌 「봉」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결핍된 주인의식과 협동의식 결여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답게 사는 길은 그 시대상황에 알맞은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실추된 도덕성을 되찾아 나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일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면 얼마나 더 살 것인데, 보람되게 살아야지

연세 높으신 우리의 부모님들은 사신다면 얼마나 더 사실까? 살아 계신 생전에 효도하여 후회 없기 바라며, 우리 자식들이 자기 부모의 그 효도를 그대로 본받아도 후회 없도록 자기 부모님께 효도함이 우리 모두의 자식 된 도리일 것이다. 현재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더 사실까? 그리고 나 자신은 얼마나 더 살 것인지? 최근 통계청(<http://www.nso.go.kr/nso2005/index.jsp>) 보도자료인 2003년 기준 생명표(生命表-2005.12.20)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77.5세이고, 즉 남자의 평균수명은 73.9세로서 OECD 평균치(74.9세)보다 1년 정도 짧아 30개 회원국 중 24위이고, 여자의 평균수명은 80.8세로서 OECD 평균치(80.7세)보다 웃돌아 19위의 수준으로, 일본(85.3세)에는 못 미치지만 미국(79.9세), 영국(80.7세)보다는 장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통계청의 남성 기대여명(예상 잔여수명)

“인간관계의 학문적 본질”은

인간 자체의 상호존중에 있는 것이기에 현재 우리들 주변에 변질된

“이기적 인간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은 38세부터 살아온 날보다 여생이 짧아지고, 여성의 경우는 41세부터 기대여명이 현재의 연령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통계수치이고 자기의 건강관리 여하로 평균치는 상당한 범위를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전제를 먼저 강조해두고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며, 나 자신도 이 전제조건에 포함됨을 수용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통계적인 숫자 놀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각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가 하고 개략적인 계산을 한다면 다음의 모형 식으로 기대여명(예상 잔여수명)을 어렵짐작을 할 수 있겠다. 즉 “국민(남여) 평균수명 - 자기 연령 = 기대 잔여수명(餘命)”일 것이다.

2001년도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1963~2000년까지 당시 11개 직업별 평균수명은 종교인 79.2세, 정치인 72.8세, 연예인 72.6세 교수 72.3세, 사업가 71.4세, 정부관료 70.5세, 법조인 69.6세, 예술가 69.0세 체육인 67.3세, 작가 66.0세, 언론인 64.6세로 분석되었다. 이 조사를 현 시점에 재조사(再調査)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처럼 3년여는 길어 져으리라 여겨진다.

건강을 위해선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권고하는 의사의 충고와 함께 직업에 따라 생명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습관에 따라 의학적으로는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도 한다.

여기서 나 자신의 경우, 교수로서 정년(停年)을 맞이한다고 하고 통계계산을 해본다면 “교수 평

균수명 72.3세 - 현 나이 64세 = 여명 8.3세”로 계산이 나온다.

2003년도 기준 생명표에 의하면 최근 생명연장의 추이를 고려하여 65세 남성의 경우 15.1년, 여성의 경우 19.0세를 더 살수 있다는 통계분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지만, 여기서 개략적 어렵치로서는 “국민(남성) 평균수명 77.5(남성 73.9)세 - 현 나이 64세 = 평균 여명 13.5(남성 9.9)세”가 된다.

쉽게 말한다면 통계적으로는 나 자신도 향후 8년여에서 14여년 정도밖에 더 살지 못할 것 같다는 통계수치가 보이지만, 통계에는 범위도 있고 예외도 있다는 숨겨진 사실을 되뇌면서도 평균여명은 상기의 어렵치에서 그 평균치는 10.9년여란 많지 않은 숫자로 나타남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 놓고 본다면 얼마 남지 않은 남은여생을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하겠으며,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그 되값음을 포함하여 더더욱 가치 있는 보람된 여생을 위한 각별한 자기노력과 건강관리 및 주변여건과 관련하여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꼭 필요한 사회적 존재이기를 바란다.

여기서 남은 인생여정을 더욱 바르게 잘 살아가야 할 자아반성의 계기로 병술원단(丙戌元旦)을 맞이하여 지나온 나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살아 갈 여생을 한번 깊게 생각하게 한다.

(원고 접수일 2006년 1월 6일)